

구조조정의 사전포석, 조직개편 반대한다! 노동조합은 절대 합의해주면 안된다!!!

■ 코앞으로 다가온 조직개편

소문으로 나돌던 조직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온 듯 하다. 우선 1월 중에 kt에서 앞으로 각 부문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구상이 언론에 유포된 바 있다. 그 내용은 T&C(Telecome & Convergence), Customer(고객)부문, G&E (Global&Enterprise)부문을 재무·회계·사업 등 모든 측면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업부문별 성과위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얼마전부터 회사내에 직원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조직개편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다. 본사와 사업부서를 슬림화하면서 수천명의 직원들을 커스터머부문의 영업직으로 내려보낸다는 소문이 1월부터 거의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기동팀’에 대한 해체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기동팀을 해체한다는 조직개편설의 내용은 우선 현재의 CM업무(구 전람)는 정예화하여 본부 또는 광역지사단위의 직할체제(현 SMB센터 운영방식)로 운영하고, 시험실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영업팀(또는 영업지원팀)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업무의 상당부분을 도급화하면서 현재 특기팀 인원의 상당수를 영업부문으로 배치할 것이라 한다.

본사 슬림화와 특기팀
개편 등의 내용을
모아보면 결국
비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수많은 인력을
‘영업’ 부문으로
강제적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인 듯 하다.

이렇게 영업, 즉
커스터머부문으로 모은
현장직원들에 대해서
강한 실적압박을
가하리라는 것도 불을
보듯 명확해지고 있다.

■ 실적압박과 구조조정의 사전포석

본사 슬림화와 특기팀 개편 등의 내용을 모아보면 결국 비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수많은 인력을 ‘영업’ 부문으로 강제적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인 듯 하다. 그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7~8천명의 규모가 되리라는 예상이 돌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업, 즉 커스터머부문으로 모은 현장직원들에 대해서 강한 실적압박을 가하리라는 것도 불을 보듯 명확해지고 있다. 각 부문별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결국 커스터머부문으로 몰아넣은 대다수의 현장직원들을 예전보다 더 강한 강도로 실적압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생산성 30% 향상목표와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으로 고생하고 있는 커스터머부문의 현장직원에 대한 실적압박은 상상을

노동조합은 즉시 회사의 조직개편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현장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재의 조직개편설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결의를 밝혀라

초월하게 될 듯 하다. 그리고 이후 실적압박에 지친 일부직원들을 퇴출대상으로 몰아부쳐 명예퇴직 또는 분사화 등 여러 방법의 구조조정시 손쉽게 털어낼 수 있게 하려는 사전포석의 의도 또한 숨어있을 것이다.

■ 노동조합은 왜 손놓고 있는가?

예전같으면 짜고치는 고스톱의 한 당사자로 활약해야 할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코빼기도 뵐지 않는다.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시 회사의 슬쩍 흘리는 언론플레이와 노조의 (말로 만의) 강한 반발 이후 결국은 회사안에 대한 노조의 “고뇌에 찬 대승적 합의” 등으로 이어지던 눈에 빤한 패턴 조차 이번에는 생략하고 가는 것인가? 아무리 식물노조, 어용노조라도 이런 아니지 않는가?

노동조합은 즉시 회사의 조직개편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현장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소문의 진상에 대해, 노동조합은 그런식의 조직개편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라. 그리고 현재의 조직개편설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결의를 밝혀라. 조합원들도 현재 각종 게시판에서 조직개편설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고 반대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즉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 kt노동합 게시판에 조합원이 조직개편설에 대해 남긴 게시글 – 조회수가 3천에 가깝다

***KT노동조합**

BLOG
KT 노동조합 블로그입니다

조합소개 News 자료실 변화공감 소통공감 나눔공감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노동조합 건설
KT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회복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HOME > 소통공감 > 나도한마디

제목	현장에 노사합의(조직개편)가 내일 발표한다는 소문이 과다합니다	
작성자	조합원	E-Mail

지금 현장에서는 내일 조직개편 관련하여 오늘중으로 난사합의서가 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현장 특별기동팀이 해체되고 CM(구.간접)업무는 1군업체로 넘어가고 특기동 직원들은 영업현장으로 재배치 된다는 소문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KT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KT에서 결코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기에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현 직원부는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날처럼 본사가 아마도 뒤집어 지는 일마 떨어지지 말란 보장 없겠지요
그러도 본날부터 KT노조를 받쳐주는 조직은 관람이었기에 아직도 자기를 밥풀이 없어진다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목록 다음글 이전글

답글 수정 삭제

특별기동팀
특별기동팀 해체 사실인가요 2013-02-15 18:00:02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02	[공지]게시판 운영 원칙	KTTU	2015-04-01	5228
23101	지부파회 개회하지 않은 지부장은 양하게 징계해야 한다	조합원	2013-02-17	98

2013년 연봉삭감은 이미 시작되었다. 성과급지급률 또다시 하락!!!

■ 성과급 지급율 하락의 의미

지난 2.6일에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13년도 성과급 지급률을 최종 협의하여 확정 발표하였다. 발표된 지급률 기준은 기준급의 735%였다. 작년도 745%에 비해서는 10% 하락한 것이고, 2011년도의 811%에 비하면 무려 76%나 삭감된 결과인 것이다.

이미 이러한 결과는 예정되어 있었다. 2010년도에 노조가 합의해준 성과급체계 개악에 따라 원래 기본급대비 600%였던 성과급 지급기준이 기준급의 750%로 바뀌어 예전 대비 75%의 임금삭감이 이루어진바 있다. 기준급의 750% 수준의 성과급은 앞으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 더 암울한 현실

직원들의 절대다수가 근무하는 커스터머부문은 더욱 암울하다. 2012년도 실적을 보면 그룹사 전체매출은 증가했지만, 통신부문, 즉 kt본체의 매출과 수익은 감소하였다. 영업이익률은 2010년도 10%에서 2011년도 8% 그리고 2012년도에 5.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전사성과급은 ‘영업이익율 6% 이하시 285%’라는 최저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부문의 실적에 따라 285%에서 다시 ±50%가 적용된다. 커스터머 부문의 경우 본체의 유무선 통신매출의 실적으로 추정컨

데 마이너스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 민주노조 복원 / 통신공공성 복원

그런데, 회사의 논리대로 매출 및 영업이익의 실적이 나쁘니까 낮아진 성과급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다. 통상임금에 속하던 성과급규모를 삭감한 2010년의 합의부터 기만에 의한 것이니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기극에 불과하다. 한편 KT는 여전히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다. 영업이익 1조가 넘는 회사가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올해도 케이티는 주주배당금을 주당 2천원으로 확정했다. 총 배당액 4,874억원은 순이익의 68%에 달하는 금액이다. 해외투기자본이 절대다수인 주주들의 배반 불리고 있는 것이다. KT최고경영진 또한 수십억원대의 연봉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현실은 뒤집어져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화두라고 하는데, KT에 적용되어야 할 경제민주화는 바로 통신공공성을 복원하여 KT가 벌어들인 수익이 절대 다수의 서민들과 내부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다시 쓰여지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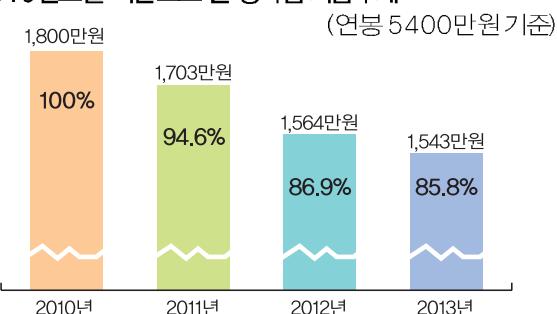
또한 당장 임금하락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KT 직원들의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민주통신에서 누누이 주장해왔듯이 KT에 다시 민주노조를 복원하는 길만이 이런 기만적인 ‘성과급체계’와 ‘고과연봉제’를 철폐하는 길이다

□ 전사성과급 산정 기준 (보수규정)

- 전사성과급 지급률 = 수익 성과급 + 성장 성과급
- 수익 성과급 : $300\% + (\text{영업이익률} - 9\%) \times 10$
 - 영업이익률 6~8% : 285% + (영업이익률 - 6%) × 5
 - 영업이익률 8% 이하 : 285%
- ※ 영업이익 : 2012년 10,310억원 (5.4%)
- 성장 성과급 : 매출성장률 × 8.5
 - 매출성장률 0% 이하 : 성장 성과급 0%
- ※ 매출 : 2011년 194,956억원, 2012년 190,352억원 (-2.4%)

★ 2013년 전체 성과급 규모 : 735% (전사 285%, 부문 300%, 팀 150%)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추세



kate '열린토론방' 토론글 지면공개

– 삭제된 노동조합 관련 토론글을 지면으로 공개합니다.

지난 설명절을 전후로 사내포탈 kate 내 열린토론방에서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노동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직원들의 요구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식답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자신의 느낌과 주장을 솔직히 드러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열린토론방 게시판 관리자가 해당 글들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민주통신에서는 삭제된 토론내용을 지면으로 일부 옮겨 당시의 토론분위기와 직원들의 생생한 주장을 볼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울러 축약되지 않은 전체 토론내용은 <http://ilovekt.org> (민주동지회 홈페이지)에 전문을 개제하였다. 민주통신에서는 지면관계상 게시글과 리플 내용을 상당부분 생략, 축약할 수 밖에 없었음을 미리 양해드린다.

노조회비 혜택은 1만원? (찬성:42/반대:3)

작성일 2013-02-07 / 등록자 노조 / 조회수 4506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노조회비 일년에 30~40만원내고 있습니다.

현데 일년간 노조에서 받는 혜택은 1만원이 안됩니다.

최근몇년간 우산하나, 수건한장이다인듯하고요.

이돈 어디로 가나요?

30내고 10만받아도 이런말 안나올듯한데,

명절에 선물세트라도 돌리세요. 홀랑드시지 말고.

댓글(총37개)

노조회비 (2013-02-07)

로 소고기를 사묵었으면... 오메 겁나 사묵었겠네..

혜택 (2013-02-07)

얼마전에 준 수건한장이요? 그거 인터넷으로 천원도 안되게 삽니다. 버리긴 아까워서 자동차 세차용으로 사용하려고 트렁크에 들어있습니다. 흥

아깝다 (2013-02-07)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아셨야 합니다. 노조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조합원에게 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그 돈으로 조합원

들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조회비 (2013-02-07)

상여금은 기준급 기준으로 받는데, 노조회비도 기준급 기준으로 합시다!!!!

지부장도 (2013-02-07)

공개 안합니다. 왜??? 그런 거 없다 합니다. 중앙에서 공개를 하지말라고 하더이다. 그래놓고 무슨 공캡니까???? 차라리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노조 홈(문서/정책)에다 올려 노시죠

노동조합비는 기준급만 거둬도 많다

(찬성:145/반대:0)

작성일 2013-02-08 / 등록자 노조원조회수 4725

현재 거둬들인 조합비를 시원스럽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대의원들이 제대로 전달할 인물이 없다

성과급은 기준급만 주도록 조합에서 만들어놓고
왜 조합비는 역량급까지 포함해서 거둬들이는가?

조합비는 기준급만 공제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투명하게 사용처를 공개해야한다

댓글(총61개)

찬성이요 (2013-02-07)

노동자와 함께하는 조합은 사라지고 노동자를 이용하는 이들로 가득한 세상

이유 (2013-02-08)

왜 투명성 있게 사용했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을텐데~ 면가 캤기는게 있는가 보종

조합원 (2013-02-08)

동감합니다! 노조비 현실화, 노조비 사용내역 공개, 본인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노조 집행부...과연 KT 노조의 대표성은 있는 건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년에 백억 (2013-02-08)

연간 백억에 가까운 노조회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현 노조의 배짱이 대단하네요.

노조회비 비싸~ (2013-02-08)

윗분말대로님// 입사3년차 기준으로 말씀드리지요 ~ 우선 제 월급 기준, 한달에 가져가는 노조회비가 2만 원입니다. 2만원*3만명*12개월 = 72억입니다.. 노조 간부들 월급 주고도 남을 금액이죠??? 정말 월급이랑 회의비 기타등등 많이 써도 한 40억 쓰겠죠? 그럼 남는 30억은 어디로 가는걸까요? 물론 복지기금이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복지기금은 회사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더 낸다해도.. (2013-02-12)

더 낸다해도 낼 겁니다. 하지만 노조다운 노조일을 (조합원의 목소리 청취)하는것과 투명한 노조가 원칙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목소리로 게시에 언급해도 그냥 노조에서 세운 회계에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니 노조비 잘 내라? 이건가요? 우선 노동조합에 득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노조원들이 득되는 일을 위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훼피 “열린위원장” 게시판에 있는 조합비 사용처에 대한 답변

(찬성:3/반대:0)

작성일 2013-02-08 / 등록자 18년동안 연체없이 매월

회비내는 노조원 / 조회수 4501

“저도아래 노조회비와명절 선물에관한게시물& 댓글들을 읽고참으로 분통터져서 제가낸 노조회비가 어디쓰였는지 궁금해 졌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조회비를 납부했는데 명절에 양말하나 없다니.....) 아래와같은 답변이 있네요.

- 이하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려진 글 -----

안녕하십니까. 열린위원장실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략) KT노동조합도 노조전임자(무급전임자) 임금이 조합비에서 전액 지급되고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과거 투쟁기금으로 많은 지출을 하던 것을 YOUTH 장학금 지원 및 IT 관련 대외활동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각종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략)

노동조합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의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초에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에게 예산집행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조합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명시하여 제작한 해당 책자자료는 전국대의원대회 때 매번 배부해드렸으니, 해당지부의 전국대의원이나 지부장에게 요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략)

/KT노동조합

댓글(총21개)

파일로

(2013-02-08)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 해야여러사람이 보지요....

노조비로 왜 불우한 이웃을?? (2013-02-08)

이해가 가지않는게 이상한건가요..

????????????? (2013-02-09)

장학금지원? 불우이웃돕기?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 건가요? 남으면 그돈 직원들한테 써주세요

OL (2013-02-09)

참 히안하군요 별도의봉사활동을 따로하고 있는데 노

이슈 KT ②

조비에서? 이보세요 한달에 일이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닙니다 부모님 이천만원짜리 암보험하나 들어드릴수 있는 돈인데 참

참... (2013-02-12)

노조는 아직도 10년전에서 멈춘 건가요? 요즘 세상에 조합비 사용내역을 책자로 제작하여 대의원에게 배포한다고요? 노조원에게 공개할 생각이 있으면 그냥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끝날 것을 굳이 돈들여가며 책자로 제작해서 노조원이 보기도 힘들게 대의원에게만 배포하는 이유가 뭔지? 결국 공개하는 흥내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노출을 최소화하자는 것 아닌가요? 머리가 팔려서 '그냥 예전하던대로 하는 겁니다'는 아니실테고..

노동조합의 필요성....반론 (찬성:10/반대:17)

작성일 2013-02-12 / 등록자 포인트 / 조회수 3981

“ 아래조합관련 많은 글들을 읽고 몇자 적어 봅니다.....(중략) 저 개인적으로 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2011년 같이 토요일 일요일 나오라면 어떻하시겠습니까? 2012년 참 좋았지 않았나요.. 또년차내고 늘상 나와 일하라면 어렵하나요...
그많은 복지제도... 당장은 다 못 없애겠지요... 하나하나씩.... 회사에서 늘 어렵다고, 적자라는 말로 학자금부터 없애고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없애고 또한 매년 받는 160포인트 없애고, 의료비 지원 길흉사시 기금... 가장 큰 매년 적자운은 월급동결... 3%, 5% 감하면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구조조정, 아웃소싱 임금피크제... 누가 합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중략) 조합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장님과 조합간부님들도 조합원의 아우성과 불만을 귀기울이시어 보다 낮은 조합운영에 매진해주시고 소통하는 조합으로 거듭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방의 한 조합원이 한자 적어 봅니다... ”

댓글(총28개)

논점이 다른 듯 (2013-02-12)

노조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kt 노조가 무능하고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 많은 직원들의 아우성인 것 같습니다

식물노조 (2013-02-12)

노조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자기의 책무는 뒤로하고 그야말로 식물노조인 KT 노조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노조의 가장 큰 책무인 임금 협상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 조합원의 아픔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단언하건데 KT노조는 그들 스스로 귀족노조이며 식물노조입니다~~ 당연히 조합원들로부터 따끔한 질책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 처절한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민동회원 (2013-02-12)

노조는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약 15년 된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얼마나 조합원을 위해 일 했는지 묻고 습니다.
1. 지하철 공사(현재 서울 메트로)와 증권회사는 아직도 퇴직금 누진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하철 공사의 경우 2012년 60세 정년 연장하였는데 정년 연장바래지 않습니다. 제대로 다닐수 만있게 해주십시오? 노사합의봐서 내@지나마세요.....
3. 월급 깎지나 마세요. 연봉제 도입후 깎여도 너무 깎였습니다.
- 제 친구 고교동창중 고등학교 선생이 있는데 6~7년 전에 은 5~6백만원 적었는데 현재 은 7천만원 넘다고 합니다. 제가 5백만원 적습니다.
4. 토, 일요일 2011년도 휴가내고서 출근한 직원 170여 개 지사 직원받았습니다. 그것도 민주동지회에서 투쟁한 결과 아닙지요? 할 말 많습니다. ilovekt.org 들어 가보세요..

노조비 사용내역에 대한 답변이 있네요.

(찬성:16/ 반대:1)

작성일 2013-02-12 / 등록자 사용내역 / 조회수 3855

“
노조게시판에 가보니, 노조비사용내역에 대한답변이 있네요. 2013년에 살고있는지, 80년대를 살고있는지, 모르겠네요. 책자로 만들파일 게시판에 게시하면 될 것을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모양새네요. 할말이 없네요.,

ps. 성실하게 노조회비 꼬박꼬박 내온 조합원임.

안녕하십니까. 열린위원회실에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략)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낸 노조회비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KT 노동조합도 이를 위해 매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산보고 및 예산(안)을 책자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음에도 해당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 지부장이나 대의원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번거롭다고 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최근 성과급이 줄었다고 노조비가 아깝다며 볼멘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중략) 정히 궁금하시면 지부나 노동조합에 찾아오십시오. 직접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대회나 총회를 거쳐 편성된 예산법위내에서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요청하시면 시정을 하겠으며, 조합활동에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합원 여러분의 호된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략) /KT 노동조합”

댓글(총27개)

이런말이 있죠

(2013-02-12)

매를 벌어요... 겸손함으로 응대하면 노조원은 다 고개 끄덕일텐데 말투가 뭐 싸우자는 자세군요 ㅋㅋ

희한하네 (2013-02-12)

요즘은 기업 결산재무제표도 인터넷으로 게시(금감원)하는 마당에 노조 결산내역을 게시판에 올리는게 힘든일인가요?? 프로세스가 문제면 프로세스를 바꾸든지하면 될 것이고,,, 지부장이 대신 해당 지부 노조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도 될 것이고.. 방법을 찾을려면 방법은 많을 것 같은데요...

한쪽은 공개하라고 하고,, 한쪽은 직접와서 보고가라고 하고.... 참나..

참.... 단어 선택하고는. (2013-02-12)

볼멘소리 : 서운하거나 성이 나서 퉁명스럽게 하는 말투

위에서 노동조합 담당자의 답변에서 성과급이 줄어들어 노조비가 아깝다고 볼멘소리를 한다는데....ㅋ 이게 어디 서운하고 아쉬워서 하는 소리인줄 아시나 보네요.... 이건 응당 노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인데.... 그걸 단지 서운하고 아쉬워서 투정부리는 것으로 알아듣고 있나보네요.... 참 어의가 없어서

역시 (2013-02-12)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노조임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어이없음.

너무하네요, (2013-02-12)

노조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노력해야 할 조합에서 나온 답변이 위와 같다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표현하는 단어들이 정말 억압, 군림이라는 느낌을 자울 수가 없네요.,

갑갑한놀조? (2013-02-12)

내가 낸 돈 어디다 썼는지 알려달라는데.... 뭔 궁지렁~ 궁지렁~ 와서 보라고!??

아님, 평소 잘 하던지~~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불러올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

정부의 KTX 민영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전면적 방식이 노동자와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자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철도공사의 관제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본격적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민영화된 KT가 노동자, 시민의 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KTX 노동자들에 대한 끔직한 정리해고와 노동인권악화를 낳았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KTX 민영화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 이에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책위의 출범 소식 및 성명서를 소개하며, KTX 노동자들의 KTX 민영화 반대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감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1월 31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책위)가 출범했다. 서울대책위에는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 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등 서울 지역의 주요 사회·노동 운동 단체들이 함께 참가하고 있다.

31일 서울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서울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 40여 명이 모여서 정부의 KTX 민영화 강행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본부 고동환 본부장은 “철도는 전국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산업이다. 이것을 재벌이나 해외 기업에 내줄 경우 국민들의 밭이 둑이고, 요금은 폭등하게 되고, 국민들은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박창완 위원장은 “민영화는 생명을 위협한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철도 민영화 이후 안전 사고가 났다”고 했다. “정부는 민영화를

철도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 자본의 이익을 불려주는 재벌들의 자유화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천창영 사무처장은 “박근혜 당 선자가 선거 때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부의 민영화 강행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동자연대 함께 운영 위원회 죄영준은 “철도 민영화는 다른 공공부문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진보진영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울 지역의 광범한 단체들이 모여 KTX 민

영화 반대 운동을 적극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책위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단체들의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발언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거나 ‘화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기자회견 이후 서울대책위 회원들은 첫 활동으로 ‘KTX 민영화 반대 서명·홍보전’을 벌였다.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유인물을 받아갔다.



재앙을 불러 올 KTX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내내 호시탐탐 KTX 민영화 추진을 시도해온 정부가 KTX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9일 철도 안전 강화 운운하며 철도공사의 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해양부가 관제권을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철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트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개정안은 통과될 수 있다. 대선 전 철도 노조의 질의에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5월 ‘KTX 민영화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 퍼센트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무려 60 만 명이 넘는 전국의 시민들이 KTX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을 정도로 반대 여론은 막강하다.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전에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KTX 민영화가 서비스의 개선과 요금인하를 가져올 것이며, 이번 관제권 회수는 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KTX 민영화가 정부의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대형참사, 요금인상, 대규모 인력 감축을 불러올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물러섰지만 동시에 ‘방만한 철도 운영을 개선’ 한답시고 시설 투자를 꺼리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로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발생했고, 철도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

레스로 죽어가고 있다.

지난해 8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아르헨티나 철도 사고의 원인은 바로 철도 민영화에 있었다. 이미 민영화의 온갖 폐해를 다 겪은 영국은 선로 운영 부문만 재국유화했지만, 운영은 여전히 민간 회사들이 맡고 있어 철도 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비싸고 서비스도 형편없기로 유명하다.

왜 우리가 이 뻔한 재앙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가?

정부는 철도 등 여러 공공부문 민영화를 통해 기업들에게 절대 불황을 모르는 황금 시장을 제공하려 한다. 전력, 가스 등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뽑아내고 있고 그 대가로 우리는 점점 높은 공공요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재벌 특혜’ 와 같은 말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민중에게 재앙일뿐인 KTX 민영화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서울 시민들에게 KTX 민영화의 폐해를 알리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건설해 나갈 것이다. 또 철도노조, 그리고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 단체들과 함께 KTX 민영화 폐기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30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정의당서울시당,
통합진보당서울시당, 진보신당서울시당,
노동자연대디딤돌, 사회진보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학생그룹 2013년 1월 30일 현재)

퇴출수단으로 전락한 고과연봉제 법원에서 철퇴맞다 !! 인사고과 평가 결과도 사법심사 대상이다 !!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kt인사고과에서 F등급을 받은 민주동지회 조합원들(원고 : 강순문 고용택 김순덕 김용광 원병희 조태욱 등 6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2013. 1. 29.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현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인사고과의 평가결과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둘째, KT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아래 일정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본사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대상자(CP)들을 일반직원들에 비하여 업무분장,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실시하면서 산하 각 지역본부 및 지사로 하여금 인사고과시 본사가 제시한 이러한 차별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관리감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셋째, 부진인력(CP) 명단에 기재된 직원들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F등급 부여에 의한 임금삭감은 헌법 제11조가 선언한 평등원칙, 헌법 제32조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취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인사평가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KT가 해당직원들에 대해 F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F등급 소송 승소의 의미

이렇듯 재판부는 KT에서 시행된 CP 퇴출프로그램

에 대해 “피고 회사가 본사차원에서 부진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퇴출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부진인력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피고 회사 산하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이러한 관리계획 등을 하달함으로써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실행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고..”라고 판시하여 CP프로그램이 본사 차원에서 계획, 실행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그 동안 회사측이 양심적인 직원들을 악랄하게 탄압하고 차별한 후 오리발을 내밀었던 부당한 행위들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이기에 우리는 이번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특히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양 치부되던 것을 부당한 인사고과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KT에서 매년 인사고과 평가 결과 약 1,500여명(5%)의 F등급자와 4,500여명(15%)의 D등급자가 발생한다. 자..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인사고과 결과가 객관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측은 법정에서 공정한 평가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른 소모적 공방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참에 임금삭감을 제도화하고 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고과연봉제 자체를 폐지할 것을 회사측에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이석채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도입된 고과연봉제의 문제점이 사법부에 의해 헌법을 위반 할 정도까지 위법한 것으로 판정받은 것 이기에 국민과 직원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측이 이번 수원지법 판결을 무시하고 어물쩍 그냥 넘어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2. 4 KT전국민주동지회

후원회원이
되어 주세요!!

kt노동인권센터에서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kt노동인권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kt는 2002년 민영화 이전부터 시작하여 국내 단일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가장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 사업장이며 급기야 2006년도부터는 CP 비밀퇴출프로그램이라는 인간학대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게 되자 2010년 4월 10일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노동인권단체로 설립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 공동대표 :

문규현 신부님(전북 평화외인권연대 대표),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조광복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석균 의장(kt 민주동지회)

● 운영위원 : 반기룡 전팀장(2011년 CP 양심선언), 박찬성 전팀장(2012년 CP 양심선언)

강호민 변호사(법무법인 함께), 김현호 노무사(노무법인 현장)

kt 민주동지회 전직 의장 6명(강세구 이남구 류방상 이재숙 장현일 조태욱)

● 감사 : 박수호 (전 kt 노조 사무처장)

● 집행위원장 : 조태욱 (kt 해고자)



kt 노동인권센터가 해온 일은 무엇인가?



첫째,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밝히는 진상규명작업을 주도해왔으며 피해자들과 법률적 대응을 공동으로 수행

(대표적 사례-CP 대상 여성노동자 김옥화-2011년, 한미희-2013년 승소 판결)

둘째, 고용노동부의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2011~2012년 이끌어 내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조치 취하게 함

셋째, 고과연봉제 F등급자 집단소송 승소(2013.1.29)

넷째, 노동인권백서를 2012.12월 발간하여 KT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알림

kt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고자 생계비와 상근자 활동비 그리고 노동인권 감시와 대응을 위한 사업경비가 필요합니다.

후원 방법은 후원계좌 입금과 CMS 자동이체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224 01-04-066641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전화: 02-701-0070, 070-8836-1127, 070-8836-1146, 02-704-4441(팩스)

홈페이지: www.ilovekt.org (부당노동행위 공익제보란 익명 제보를 통해 상담 가능)